

“자립준비청년의 그늘 다독이는 ‘든든한 이모’ 될래요”

포커스 이 사람 광주시자립지원전담기관 **황 인 숙** 관장

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‘자립준비청년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홀로서기를 지키는 이가 있다. 주인공은 황인숙 광주시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.

황 관장은 지역 사회복지의 ‘산증인’이다. 1983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기틀을 직접 다지는 등 40여년 동안 오롯이 복지 외길을 걸었으며, 지난 2020년 퇴직 후에는 호남대학교 초빙교수로 대학 단상에 서며 사회복지 교육자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다.

공직에 이어 강단에 선 그녀는 편안한 노후를 즐길 법도 했지만 늘 시선은 현장에 있었다. 사회복지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했기 때문이다.

황 관장은 “퇴직 후 단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보람있지만, 몸과 마음이 여전히 현장을 기억하고 있었다”며 “정년 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한 다짐을 지키고 싶었다”고 전했다.

그러던 중 2021년 6월 삼성화재디딤돌 사업으로 첫발을 뗀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돼 문을 연 광주자립지원센터의 소식을 접했다.

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, 가정위탁 등에서 자라다 만 18세(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)가 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기관이었다.

황 관장은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곳이라

판단에 망설임 없이 초대 관장에 지원, 성공적으로 취임해 10여명의 직원들과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들의 일상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특히 보호 종료된 청년들을 최소 5년간 정기적으로 만나 삶을 모니터링, 현재 500명의 청년을 관리 중이다. 20대 청년 특성상 타지역 이동이 많아 숫자는 매년 유동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.

황 관장이 취임 후 가장 공을 들인 시스템은 바로 ‘사례관리 고도화’다. 최근 경계선 지능이나 정

지에도 정성을 쏟았다. 취임 직후 기간제였던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. 직원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해야 청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간다는 소신 때문이다.

이러한 정성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로 이어지고 있다.

자립에 성공한 한 청년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길라잡이 역할을 하며, 최근 정부 부처의 청년보좌관으로 발탁되는 성과를 거뒀으며,

또 다른 이는 간호학과를 졸업해 수도권 병원에 입사하기도 했다. 또 취업에 성공해 가정을 꾸린 청년, 자영업을 시작한 청년 등 자립에 성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.

황 관장은 “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실제로는 바르게 잘 자란 ‘양자’의 청년들이 훨씬 많다”며 “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어려움에 처할 청년들을 위해 별도의 후원금 계좌를 운영하며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

청년을 홀짝 지만 나이지만 황 관장은 여전히 청년들보다 밝은 에너지로 현장을 누비겠다고 약속한다.

그는 “아름다운 청년을 꿈꿨지만, 역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”며 “공직생활을 잘 마쳤고, 자식들도 시집, 장가를 보내며 속제도 마쳤으니 복지현장에 더욱 집중하며 배푸는 삶을 살겠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이제 남은 삶은 현장에서 더 나누는 일뿐”이라며 “‘안 될 이유’를 찾기보다 ‘될 이유’를 찾아 단 한 명의 청년이라도 놓치지 않고 지켜내는 따뜻한 이모가 되겠다”고 덧붙였다.

이산화 기자 goback@gwangnam.co.kr



황인숙 광주시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은 “이제 남은 삶은 현장에서 더 나누는 일뿐”이라며 “‘안 될 이유’를 찾기보다 ‘될 이유’를 찾아 단 한 명의 청년이라도 놓치지 않고 지켜내는 따뜻한 이모가 되겠다”고 밝혔다. 최기남 기자 bluesky@gwangnam.co.kr



황인숙 관장과 직원들이 자립준비청년의 심리,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.



요리교실에 참여한 황 관장.



황 관장이 자립준비청년의 심리·정서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!

· 회원모집 안내

구 분	분양금액	구좌	회 원 특 전
VVIP (A형)	700	6좌	- 정회원 1인 : 그린피 면제 (1일·1회 사용), 골프호텔 할인혜택,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50% 할인, 연25회 그린피 면제 (1일·1회 사용) - 지정회원 1인 : 그린피 면제 (1일·1회 사용), 골프호텔 할인혜택,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70% 할인 (1일·1회 사용) 비회원엔 그린피 면제 위임시 그린피 70% 할인 (1일·1회1월4인 기준) (단, 그린피 면제는 정회원, 지정회원, 비회원 중 1일·1회만 사용가능) - 지정회원 2인 : 그린피 면제 (단 배우자,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, 1일·1회 사용) - 무기명카드 1매 발급 : 그린피 50% 할인 (연 120회 사용/월 10회 소멸성, 1일·1회 사용)
VVIP (B형)			- 회원 없음 - 무기명카드 1매 발급 : 그린피 70% 할인 (연 60회/월 5회 소멸성, 1일·1회1월4인 기준)
VIP 정회원	500	9좌	- 정회원 1인 : 그린피 면제 (1일·1회 사용), 골프호텔 할인혜택,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50% 할인, 연20회 그린피 면제 (1일·1회 사용) - 지정회원 2인 : 그린피 면제 (단 배우자,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, 1일·1회 사용) - 무기명카드 1매 발급 : 그린피 50% 할인 (연 120회 사용/월 10회 소멸성, 1일·1회 사용)
하트 정회원	320	5좌	- 정회원 1인 : 그린피 면제 (1일·1회 사용), 골프호텔 할인혜택 - 지정회원 1인 : 그린피 면제 (1일·1회 사용) - 무기명카드 1매 발급 : 그린피 50% 할인 (연 72회 사용/월 6회 소멸성, 1일·1회 사용)
해피 정회원	180→160 (할인 20)	3좌	- 정회원 1인 : 그린피 면제 (1일·1회 사용), 골프호텔 할인혜택 - 무기명카드 1매 발급 : 그린피 50% 할인 (연 36회 사용/월 3회 소멸성, 1일·1회 사용)

회원권 문의 전화 ☎ 061)330-5004

· 골프호텔 객실



- 2인실 -



- VIP 4인실 -



- 별채 -



- 별채 -



해피니스컨트리클럽

전남광주통함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-60

대표전화 061) 330-5000 | 예약전화 061) 330-5001~4